

15. 자위 Masturbation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위(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인 성적 자극)보다 더 합의보기 힘든 성을 다룬 주제는 없을 것이다. 1세기 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서구 문화의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위가 잘못이라는 것과 사람들(싱글 선교사를 포함한)은 자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고대의 벽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예술품과 많은 문화의 초기 문학에서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심지어 신들조차 자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명백하게 이러한 문화들의 대부분은 자위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구 문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기독교도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킹 제임스 성경(KJV)은 17세기 초에 등장하고,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기 위해 선택된 영어 단어들에 자위에 대해 기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 창세기 38장 9-10절(KJV). 자위(Onanism):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킹 제임스 성경의 초기 독자들은 오난이 자위를 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위를 ‘Onanism’으로 불렀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였으므로 자위를 죄로 여겼다.
- 미가 2장 1절(KJV):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침에 침대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킹 제임스 성경의 특정 문구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비취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위는 악한 행위였다.
- 고린도전서 6장 9-10절(KJV):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자위(self-abuse자학)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18세기 동안 자위는 서구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 받았다.

- 1716년, 네덜란드 신학자 발타잘 벡커 박사(Dr. Balthazar Bekker)는 ‘Onania, 즉 자기 오염의 가증스러운 죄,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있을 모든 무서운 결과’라는 소책자를 썼다. 이 소책자는 여러 언어로 60판 이상 출판되었다.
- 1760년, 스위스 의사 사무엘-어거스트 티소(Samuel-Auguste Tissot)는 ‘L’ Onanisme,’ 자위 행위를 통한 정액의 손실은 힘, 기억력, 사고력, 시력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의학 논문을 발표했다. 자위는 또한 수십 종의 다른 질병들, 통풍, 류머티즘, 두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 1797년,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그가 출판한 『도덕의 형이상학 (Metaphysics of Morals)』에서 “사람의 성적인 속성의 이러한 부자연스런 사용은... 자신에게 의무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부도덕함은 사람이 자위를 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을 포

기'했기 때문이다.

- 19세기: 많은 예가 있다.
- 1888년에서 1917년까지, 존 켈로그 박사(Dr John Kellogg)는 미국의 의사(헨리포드와 토마스 에디슨에게는)이자 발명가(콘플레이크)이며, 교육자(미국 의료 선교 대학)였다. 그가 여러 판에 걸쳐 출판한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숨김없는 사실들(Plain Facts for Old and Young)』이란 책에서 97페이지에 걸쳐 ‘은밀한 범죄(혼자하는 범죄, 혹은 자학)’에 대해 기술했다.
- 1914년, 영국의 보이스카우트의 창립자 로버트 바덴-파월(Robert Baden-Powell)은 『소년을 위한 정찰활동(Scouting for Boys)』라는 책에서 자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며 스카우트들에게 경고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준비됨’에 대해 말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는 보이스카우트는 자신의 생식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체액(정액)을 낭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는 1945년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명백하게 자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 받았다. 그것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여겨졌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0세기의 후반 동안 앞의 세 개의 킹 제임스 성경 구절이 더 정확하게 이해되었다. 몇몇 변화는 일찍 일어났더라도, 모든 변화가 그 때까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대중적인 NIV 성경이 1978년에 등장했을 때,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 창세기 38장 9-10절(NIV)을 보면, 본문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오난(Onan)이 자위를 했다고보다는 사정하기 전에 성기를 빼내는 질외사정(피임의 한 형태)을 실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오난이 레위인 결혼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25:5-10).
- 미가 2장 1절(NIV):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개역개정)”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악은 밤중에 계획되고, 낮 동안 행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고린도전서 6장 9-10절(NIV): ‘동성애 범죄자(homosexual offenders)’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사실 성경이 자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자위가 죄라는 것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들은 악에 대한 일반적인 구절을 자위에 적용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0세기 중반에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자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위를 해롭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합법적이고, 언제나 가능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고, 긴장을 풀어주어 혼전 성관계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성경이 자위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의학이 자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위에 대한 많은 다른 결론들을 내기 시작했다. 사실 1975년까지 사람들은 다른 결론들을 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 1968년, "자위-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찰리 쉐드(Charlie Shedd)가 쓴 『황새는 죽었다 (The Stork is Dead)』라는 책의 한 장의 제목이다. 그는 그 장에서 지난 세대는 진리에 눈이 멀었고, '자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매우 지혜로운 창조주의 지혜로운 공급하심'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10대들에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기고 사용하라고 조언하였다.
- 1971년, 자위-때로는 죄, 때로는 죄가 아님. 『결혼 전에 성적 이해(Sexual Understanding Before Marriage)』라는 책에서, 허버트 마일(Herbert Miles)은 "언제 자위가 죄가 되는가?"와 "언제 자위가 죄가 되지 않는가?"라는 장(chapter)의 섹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자위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지만, 죄악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원리에 따라 자기 조절의 목적을 위한 제한적이고 일시적 근거에 둔 자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973년, "자위는 죄다." 이것은 제이 아담스(Jay Adams)가 쓴 『기독교 상담 방법(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의 한 장의 섹션 제목이다. 거기에서 그는 성경이 자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1)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힘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위를 통제할 수 없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 (2) 마태복음 5장 27-28절에서 예수님은 성적인 상상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 중에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되므로 죄이다.
 - (3) 성경이 자위를 성에 관한 선택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죄이다.
 - (4) 아담스는 자위가 성적 행위의 왜곡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한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많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론

자위가 수천 년 동안 많은 문화에서 행해져 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비록 몇 세기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 성경구절을 자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자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싱글인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람들이 자위를 하는 경우 연관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이 아담스가 말한 처음 두 가지 주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싱글인 선교사가 자위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전6:12). 그들이 음란한 상상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은 죄이다(마5:27-28).
- 자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신체적인 해가 되지는 않는다. 지난 두 세기 동안을 살펴보면 자위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해지는 질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싱글 선교사들은 자위의 일부 형태가 신체적 손상이나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http://men.webmd.com/features/masturbation-5-things-you-didnt-know>의 WebMD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라.
- 우리는 자위로 인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은 해서는 안된다.
- 자위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거나, 사회적 교류나 일상 생활을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위를 하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